

서평 <권리와 자유의 역사>

# 기독교 전통이 법과 권리의 형성에 미친 영향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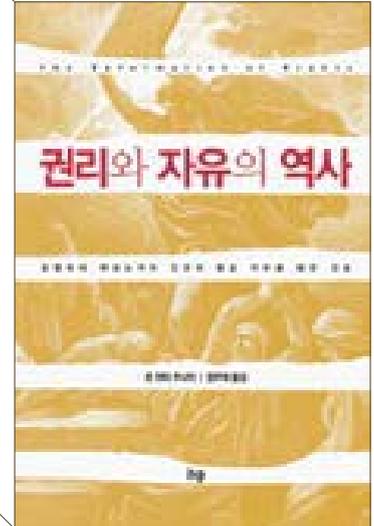
저자인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는 서문에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30년이 걸려서 계몽주의 이전의 서구 전통에서 권리 담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p.11) 이어서 말하기를 “서구의 전통 중 특히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에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따라가 보려고 한다”(p.12)고 하였다.

서론(p.19)에서 저자는 “프랑스 혁명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전조라고 묘사했다”는 어느 역사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칼뱅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p.19).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법학자인 장 칼뱅(1509-1564)의 운동은 제네바에서 생성된 이후 250년 동안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북미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다.”(p.19) “칼뱅의 법사상과 정치사상 역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등 상반된 두 성향에 널리 영감을 줄만큼 충분히 변화무쌍하고 선동적이었다.”(p.19-20)

이 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서구 전통, 권리 담론,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칼뱅주의, 자유민주주의, 근대 전체주의이다. 그러나 서평자가 첨가할 가장 큰 키워드는 “기독교 전통과 법 및 권리의 형성”이다.



**김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졸업,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및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Fulbright fellowship)를 졸업했다.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창설하고(1982), 교수로 재임하다가 현재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표작은 『법과 경제질서』 4부작(2009-2014)과; 『법과 종교』 3부작, 1) 『종교와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이론』(해럴드 버만의 원저, 1992), 2) 『칼뱅주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에서』(공저, 2010), 3) 『법과 혁명1: 서양법 전통의 형성1』(해럴드 버만의 원저, 2013)이 있고; 『한국 법학』 3부작(2007-2009)이 있다.



2.

이 책은 한국의 서점 어디에 꽂혀야 할까? “서구 전통”을 보면 서양사 분야에, “권리 담론”을 보면 법학 분야에, “프랑스 혁명”을 보면 서양사 분야에, “칼뱅주의”를 보면 신학 및 종교학과 기독교 관련 서적에, “계몽주의”를 보면 철학 및 사상사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와 “근대 전체주의”를 보면,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법학 분야에 꽂힐 것이다. 한국의 대형서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뜻밖에도 법학 서적이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작다. 그 이유는 법학 책의 90%가 각종 시험을 목표로 하는 수험서이기 때문이다. 법학 내부 분야에서 이 p. 즉 『권리와 자유의 역사』는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우선 권리 일반의 논의이니 법학 일반 또는 법학 통론에 해당된다. 책의 용어대로 인권이라 하니 기본적 인권 얘기라면 헌법 서가에 꽂힐 수 있을까? 또 “서구 전통의 권리 담론”이라고 하니, 서양 법제사와 법 철학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의 서양 법제사는 2013년에 출판된 해롤드 버만의 『법과 혁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주로 19세기 독일의 민사법을 취급해 왔다. 한국의 법철학은 주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기준점으로 몇 사람의 전형적인 법 철학자들

을 취급해 왔다. 따라서 수험서가 대중인 한국 대형서점의 법학 분야 서가에 서평 필자가 지적한대로 여러 분야에 이 책이 꽂힐 확률은 낮다.

3.

칼뱅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책은 당연히 종교학 및 신학 분야에 속한다. 또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 관련서이다. 그러나 최근의 약간 놀라운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권리나 법의 문제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한 예는 거의 없다. 당연히 칼뱅주의 연구자는 이 책이 신학 사상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목표 주제가 법, 권리,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학과 중첩된다는 것을 알고 다소 당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4.

전공자를 제외한 넓은 범위의 지식 교양층에게는 이 책의 전제인 근대 법의 권리 개념이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에서 출발했는가, 또는 기독교 전통인 칼뱅주의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약 30년이 걸렸다는 이 책의 내용이

1530년대의 칼뱅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왜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

5.

따라서 필자는 존 위티 교수가 동아시아인 특히 2010년대의 한국 독자를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서구 전통에서의 권리 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독자를 위해 다소 다른 언어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한국의 지식 교양층과 대학, 학계에서 익숙한 학문 및 지식 분류법은, 한국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사와 문명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지구촌”을 지향한다는 2015년에도 한국 문명과 문화는 인류 문명사의 주된 흐름에서 판단할 때 상당한 거리가 있고 특수성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절화나 폐쇄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 한국인들은 개화기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리고 지식의 전문화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취할 때까지 한국인들이 원래 지녀왔던 지

식에 대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견지해 왔다. 즉, “대학 이후부터 전공은 다른 전공과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 어떤 주제를, 여러 전공의 연구자 또는 복수 전공자가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이다.” 서양 근대 학문이 근대 대학에서 출발할 때, 즉 신학, 법학, 의학의 초창기에 신학과 법학이 거의 쌍둥이 형제와 같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법학의 주된 역할은 사법 관료와 행정 관료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법과 권리를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법학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신학의 1차적인 문제도 될 수 없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거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 책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내용이다. 또한 한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자유화 · 민주화” 조차도, 오로지 정치권력의 이양이나 정치적 변동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서양 문명에서는 어땠던가? 이 책의 저자 존 위티 교수의 스승인 해롤드 버만 교수는 서양 문명의 특징을 “법과 종교”라는 이중적 주제로 평생 연구하였다. 그는 문명사에서 주요 혁명을 “법과 종교”의 문제로 환치하여 생각하였다. 즉 이 책의 저자가 『권리와 자유의 역사』를 서양사의 주제로 내세운 것은, 이미 해롤드 버만이 약 60년에 걸쳐 서양 문명의 주된 테마가 종교와 법의 상호 교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저자를 가르치고 이윽고 예모리 법과대학에서 다시 동역 관계로 법과 종교 센터를 키워나갔던 해롤드 버만 교수의 대표작 『종교와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이론』(원저 1974년, 한국어판 1992년), 『법과 혁명1: 서양법 전통의 형성』(원저 1983년, 한국어판 2013년), 『법과 혁명2: 근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원저 2003년, 한국어판 출간예정)을 총론으로 한 칼뱅주의 각론이다. 

